



일주분

중고생 21명에 장학금
 도후 철원 심원사 주지는 8일 지정전에서 철원군내 중고생 21명에게 총 6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15일 금산서 권투경기
 대명 분황사 총무는 15일 오후 2시 금산 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세계권투 타이틀매치 세미나이날 경기에 참가한다.

'대중견성론' 출판회
 김재영 청보회 회장은 22일 오후 5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대중견성론>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다.

법성회 창립 8돌 기념식
 이만호 총부예비역불자연합회 법성회장은 21일 오후 7시 청주 총부불교문화회관 4층에서 창립8주년 기념식을 봉행한다.

광동고 법당 개원
 고희택 광동고 교장은 13일 오전 10시 광동고 별관 3층 선불장에서 법당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인사

동국대 서울캠퍼스= △경영대학원장: 김태홍 △경영대학장: 이승영 △교육대학원: 교학부장: 이종석 △국제정보대학원: 교학부장: 이영면 △분당캠퍼스: 사무국장: 윤범대 △학생선발실장: 황우열 △교육개혁추진단: 팀장: 전영일 △발전기금팀장: 황주환 △총무팀장: 박광호 △가상대학: 교학과장: 박승중
 경주캠퍼스= △사무처장: 신일식 △시설관리팀장: 이철우 △의과대학: 교학과장: 한대호 △금강생물관: 관리과장: 석광열

“환경바라밀 운동으로 국토청정”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



“위대한 환경사상가이자 실천가이신 부처님께서 나와 이웃, 자연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행을 펼쳤듯이, 동체대비의 큰 가르침을 좌표로 삼아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되찾는 환경바라밀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6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출범한 불교환경연대 상임 공동대표에 선임된 수경 스님(실상사, 섣덕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상임대표)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지 않고서는 보살도, 불국토도 없다”면서 “산과 강, 바다, 깃털과 이웃을 살리며 공동체 정신을 회복

백두대간 사찰·생태 조사 환경교육·정책 감시 연구

하는 환경보살이 되겠다”고 말했다. “미물까지도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지 못하고서는, 풀 하나 놓인 자리의 의미를 존중하지 않고서는 보살의 향훈이 피어오르지 못한다”고 말한 스님은 저항과 반대 보다는 생명의 존중과 살림의 정신 및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불교다운’ 환경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경 스님은 백두대간의 주요 장소는 물론이고 명산의 중심부에

있는 사찰을 네트워크로 연결, 실질적인 상설 범불교단체를 출범시켜 그동안 사안별로 대응해 왔던 불교계의 한시적인 환경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백두대간에 소재한 사찰 일원의 수행환경과 자연생태계 조사를 실시, 백두대간의 자연, 문화, 종교환경 보존을 도모해 청정국토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1차적으로 내년까지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권역을 조사해 보고서 및 지도를 제작하는 한편 불교환경론의 정립, 불교환경 교육, 환경관련 정책-행정-의정활동의 감시, 환경법령연구 및 제개정 활동 등을 펼친다는 방침.

지난해 8월 29일 창립된 지리산살리기 캠페인 범불교연대의 지리산담 백지화 및 낙동강, 새만금갯벌 살리기 등의 성과를 이어받아 새로운 불교환경단체로 확대 재편된 불교환경연대의 선장을 맡은 수경 스님. 이제껏 그랬던 것처럼 본분담자로서 몸소 실천하는 종교 환경운동의 길잡이가 될 뿐 아니라 시민환경운동이 사상적, 실천적으로 깊이를 더하는 데 온 몸을 던지겠다고 ‘민일 보살’이 청정한 국토를 얻으려거든 마땅히 그 마음을 청정하게 가져야 하므로 불제자인 우리는 마땅히 환경보살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jkim@buddhapa.com



신흥사 주지 마근 스님 취임법회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는 2일 등문성 속초시장 등 사부대중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지 마근스님 취임식을 거행했다. 마근 스님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일주분을 건립해 신흥사가 수행도량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갖추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성 도피안사 금하효행상 시상

안성 도피안사는 2일 ‘제1회 금하효행상 시상식’을 봉행했다. 우원분절 법회를 겸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죽산면에서 선정된 박노영씨 부부와 권남희씨 부부가 효행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도피안사 주지 송암 스님을 비롯해 이명희 안성시장, 최병찬 안성문화원장 등 지역인사들과 신도 5백여명이 참석했다.



법현스님, 생명나눔 기금 전달

선서화가 법현스님(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이 4일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법정스님을 방문, 7월 7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스님의 전시회 수익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법현스님은 “자신의 작은 정성이 불우한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져 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눔의 집 기금마련 일일 찻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 집(원장 능공스님)은 4일 조계사 근처 찻집 ‘생각해보자’에서 ‘역사관 개관 3주년 기념 및 나눔의 집 운영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을 열었다. 일일 찻집과 함께 장터 개설,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500여 명이 동참했다.

“1천여 회원 교류 활성화 주력”

석림동문회장 법타 스님



“구술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듯이 회장 소임을 맡는 동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석림보배들을 하나로 꿰는 일에 진력할 생각입니다.”

6일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열린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18차 정기총회에서 10대 회장으로 선출된 법타 스님(은혜사 회주) 스님은 석림동문회 조직을 튼실히 하는 것이 모교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지름길이라며 조직 활성화를 최우선 사업으로 꼽았다.

지난 77년 창립된 석림동문회의 회원은 약 1천여명이지만 동문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은 극히 일부다.

특히 조계종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어려워진 상태. 스님은 “새 사무총장 상운(조계종 포교부장) 스님을 중심으로 새 집행부를 구성, 학교와 종단 그리고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법타 스님은 67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를 졸업해 현재 일련학연구원 이사장, 은혜사 회주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김종근 기자 gamma@buddhapa.com

“나를 버려야 참봉사”

사회복지 총리상 김옥자 보살



“남을 보살피는 자 비행에 더욱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보전복지부가 10일 63빌딩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봉사 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김옥자씨(50). 그는 “봉사는 내 일, 봉사하는 곳은 내 집, 봉사 대상자는 내 형제로 생각했으면”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 씨에 따르면 봉사는 자신을 떠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봉사 현장에서 남이라는 생각 또는 불쌍하고 더럽다는 선입견은 금물이다. 즉 ‘나를 버려야 한다’는 게 김 씨의 봉사관이다. 이는 ‘봉사하는 곳에 누가 되지 말라’는 성덕스님(불교자원봉사연합회장)의 당부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김 씨의 봉사 여정은 19년 전 ‘좋은 일 하러 가는데 함께 가겠느냐’는 스님의 말에서 시작됐다. 이후 김 씨는 혜명보육원과 양로원에서 아이들과 노인들의 수발이 되고, 국립의료원에서 수술용 거즈를 접는가 하면 상락원 장애아들의 보모 노릇도 했다. 또한 복지관의 독거노인 밀반찬 배달, 서울 탑골공원과 잠정공원에서 무료급식, 소년소녀가장 후원자 찾기 등에 참여했다. 김 씨는 “봉사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을 선행도량으로 삼았죠”라며 19년 동안 봉사에 임한 자세를 설명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a.com

지역불교 문화기행

9월 : 부석사·봉정사·용문사 고려 목조건축의 아름다움

회원들의 근분도량인 부석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목조건축물의 하나인 무량수전(국보 제18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아한 배흘림기둥과 능률하면서도 기품있는 건축미를 지닌 무량수전은 세계의 건축가들이 한 번씩 보고갈 정도로 아름다운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여왕이 방한해 더욱 유명해진 봉정사 극락전은 통일신라 시대의 건축양식을 잘 이어받은 주심포 맞배지붕 건물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

물입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회전사 불경보관대인 윤장대가 있는 예천 용문사도 함께합니다.

- 출발: 9월 22일(토) 밤 11시 조계사 앞(무박 2일)
- 회비: 5만 5천원(초식·중식제공)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 (예금주 선정호)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부석사 석탑과 안양루.



부처님처럼 니르바나를 믿어야 바른 불교다

다석사상으로 본 새로운 금강경 풀이

다석사상으로 본 불교, 금강경

은 생애에 걸쳐 진리를 추구하여 구경(究竟)의 깨달음에 이른 우리나라의 큰 사상가 다석(多夕) 류영모(柳永模, 1890~1981). 다석은 불교와 기독교, 노장(老莊), 그리고 공맹(孔孟)사상 등을 두루 탐구하여 이 모든 종교와 사상을 하나로 꿰는 진리를 깨달았다. 다석은 자신의 이름보다는 함석헌의 스승으로 더 알려져 있다.

버락치듯 깨닫는 지혜의 경전 열나(法身)를 찾아 ‘참다운 자아’에 이를 때 절대세계(니르바나)와 하나되어 생사를 넘어서는 참다운 자유를 얻게 된다는 다석사상을 바탕으로 새롭고 알기 쉽게 풀이한 『금강경』.

박영호 지음 / 296면 / 13,000원 / 양장

- 두려의 다석 사상전집
- 1 진리의 사명 다석 류영모 (상)
 - 2 진리의 사명 다석 류영모 (하)
 - 3 다석 류영모가 본 예수와 기독교
 - 4 다석사상으로 본 불교, 금강경
 - 5 다석사상으로 본 불교, 빈아심경 (근간)
 - 6 다석사상으로 본 유교 (근간)
 - 7 다석 류영모 강의록 (근간)

도서출판 두레 전화: (02)702-2119 팩스: (02)715-9420

海印佛教美術院



해인 불교 미술원은 장인 정신으로 불국토를 이룩하겠습니다

전통 탕화 전문 ■ 시왕 조각품 채색 ■ 개금

서울시 중구 목정동 18-27 대익 문화원 빌딩 代 02)2265-0108